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그랑파리 프로젝트

유무종

아틀리에 파트릭 코다 재직

그랑파리 프로젝트

개요

도시는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왔다. 그 가운데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러나 파리는 오스만이 19세기 중반에 재정비한 이후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까지도 큰 변화 없이 훌륭히 도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방식 변화와 그로 인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재의 파리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결론이 났고,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요구에 맞추어 현재 파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랑파리 프로젝트(Le Grand Paris)’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시환경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포럼 데 잘(Le forum des Halles) 리노베이션과 센강 주변 제방길을 개선한 이후 파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며 파리 외각을 둘러싼 순환도로를 조금씩 넓혀 나갔다. 파리지 경계에 위치한 대표적 순환도로는 보행자도로가 될 것이고, 파리 시내와 인근 외곽지역은 문화와 환경보호에 가치를 둔 기술과 혁신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 프로젝트에 의해 조금씩 변화를 맞이해 갈 것이다. 모든 파리 시민과 파리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이 계획에 큰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변화’의 중심에는 ‘환경’을, ‘개발’의 중심에는 ‘보존’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필두로 내세우며 진행된 ‘앞으로 미래 파리를 대표하는 9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파리와 건축가의 새로운 제안과 창의력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갔는지 살펴봄,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진행 상황

2007년 9월 17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에 의해 시작된 그랑파리 프로젝트는 파리 도시지역

을 21세기 도시로 변화시키고, 경쟁하는 국제 거대 도시들 사이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10년 6월 그랑파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관련법이 공포되었고, 이때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우선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수도권의 가시적 매력을 강화하고 ▲도시 내 더 많은 균형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것을 내세운 바 있다.

‘Explore France’*에서 선정한 9개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

도시의 오래된 건물과 미개척지를 재개발하고 폐쇄된 기차역을 비롯한 방치된 도시공간을 생활공간으

로 변화시키고 친환경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그랑파리 프로젝트와 전반적인 파리 도시재생의 시동을 걸었다.

2019년 ‘Explore France’는 다음의 9개 프로젝트를 파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축물로 선정했는데, 이들은 이미 설계공모 심사가 끝나 실제로 지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는 건축 프로젝트들로 새로운 부지에 개발해 짓기보다는 낙후되거나 버려진 도시공간이나 건물 또는 도심의 경계를 파리가 선정했으며, 이 건축 프로젝트들을 통해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에서는 단순히 사용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물체로서 건축물을 넘어 또 다른 기능을 가진, 기존의 도시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생활공간으로의 변모를 시도한 건축가의 고민과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파리 익스프레스에서 발표한 대중교통 확장 계획

출처: <https://www.societedugrandparis.fr/gpe/carte>

* 파리의 명소와 전시회 등 현재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프랑스 관광청에서 따로 개설한 사이트이다. 국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 프랑스의 문화와 지역을 브랜드화하여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외곽순환도로에 조성된 숲(Une forêt sur le périphérique) - 수 후지모토 & 마날 하슈디
(Sou Fujimoto Architects & Manal Rachdi)**

두 건축회사인 일본의 수 후지모토와 프랑스의 마날 하슈디가 포즈 마요(porte Maillot)에는 ‘천 개의 나무(Mille Arbres)’라는 이름을 가진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127개의 아파트, 2개의 사무실 건물, 4성급 호텔이 공존하는 인도 자연 생태계를 목표로 하였다. 파리 시내와 뇌이(Neuilly)의 경계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대기오염을 견뎌낼 수 있는 수천 그루의 나무를 건물에 심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자동차 교통 혼잡을 숨기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숲의 중심부에 떠 있는 대지 이용률을 최대화하는 역피라미드 형태의 마을로 만들었다. 정원, 도시농업, 녹색 지붕과 벽을 포함하여 총 2만 6,000m² 이상의 새로운 식재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도심 전망대(Une forêt sur le périphérique) - 데이비드 치퍼필드
(David-Chipperfield-Architects)**

파리의 도심도 변화하고 있다. 센강 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건물이 바로 그 예이다. 이곳에 위치한 파리 도시계획 아틀리에(Ateliers Parisiens d'Urbanisme)는 4만m²의 공간

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원래 모습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공간을 재생시킨다는 목표하에 ‘몰랑드 믹시테 카피탈(Morland mixité Capital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500m² 되는 식품시장이 있는 실내거리를 따라 도심의 대로에서 센강 변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주 아이디어로 삼고 있다. 호텔·사무공간·스포츠시설과 시장이 이 미래지향적 복합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며, 도시 전망을 감상하고 싶은 방문객은 건물 옥상에 올라 180도로 펼쳐진 파리 전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각광받는 스포츠(Le sport en vedette) - 아르델 & 르비안(Woodeum SAS Hardel et Le Bilhan architectes)

‘스포츠, 자연 그리고 나무(De Sport, de nature et de bois)’라는 주제의 이 프로젝트는 파리와 파리 남쪽 방브(Vanves)의 경계 지역에 세워질 생활 스포츠 공간으로, 수도와 주변 지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다양한 인프라와 복잡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가는 부피가 간결하고 절제 있는 형태를 제안하였다. 3개의 학생기숙사와 젊은 근로자를 위한 숙소가 포함된 이 건물은 2024 파리올림픽 개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총 2,500m²에 달하는 공간이 스포츠 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 애호가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Sou Fujimoto Architects et Manal Rachdi - OXO Architects, Compagnie de Parisbourg et Ogic



외곽순환도로에 조성된 숲

출처: <https://www.actuariarchi.com/projet/mille-arbres-paris-oxo-sou-fujimoto/>

©David-Chipperfield-Architects



새로운 도심 전망대

출처: <http://www.leparisien.fr/paris-75>



각광받는 스포츠 공간

출처: <https://www.hardel-lebihan.com/projets/equipements-sportifs-logements-paris-15>

푸샤르 시장 재건축(La réhabilitation des Halles Pouchard) - 르클레크 아소시에 (Leclercq Associés)

파리 북부 우르크 운하(Canal de l'Ourcq) 근방에서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푸샤르 시장 건물에 지어질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에 금관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는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는 이 건물이 '거대한 온실(Grandes Serres)'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혁신적인 생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공장 부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재질과 볼륨에 신경을 쓰며 부지 주변에 산책로를 두어 주변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10만m²에 이르는 이 대규모 공간은 호텔, 극장, 아트 갤러리와 레스토랑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포트 드 라 샤펠 오 베르("Au vert" Porte de la Chapelle) - 네M 아키텍츠 (NeM Architecte), 티브이케이(Agence TVK)

라 샤펠과 라빌레트 공원 사이 1만 3,000m²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이 친환경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에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심 속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오 베르의 목표이다. 최초의 저탄소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넓은 정원과 지



푸샤르 시장 재건축

출처: <http://ee.france.fr/en/discover/innovative-and-everlasting-9-urban-renewal-projects->

붕을 이용한 빗물정화 계획, 건물을 활용한 소음방지 등 각 프로그램의 유형은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다. 이 계획을 토대로 거주·사무·상업·문화·스포츠 공간이 세워질 것이며, 4,700m²의 개방형 정원이 조성되어 여러 공간을 잇는 연결 통로로 사용될 예정이다.

라 쿠르뇌브 문화제작소(La Courveuve, 'La Fabrique des cultures) - 도미니크 페로 건축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파리 북부의 '바브코크(Babcock)'는 과거 산업용 난방기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버려진 공간으로, 이곳에 5만 2,000m²에 이르는 '문화제



포트 드 라 샤펠 오 베르

출처: <http://www.nemarchitectes.com/triangle-eole-evangile>



라 쿠르뇌브 문화제작소

출처: https://www.compagniedephalsbourg.com/portfolio_page/la-fabrique-des-cultures/

작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 건물은 20세기 초의 탁월한 산업 유산이다. 따라서 들어설 프로젝트의 목표는 과거를 간직하되 미래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공장은 문화·스포츠·숙소·상업·사무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며, 이 황무지에 '증강현실 클러스터'까지 들어서면 이곳은 그랑파리 프로젝트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로망빌, 기억의 장소(Un lieu de mémoire à Romainville) - 샤힌다 란 아키텍츠 (Shahinda Lane Architecture)

로망빌 요새는 19세기 초 파리의 방위선을 이루던 16개의 요새 중 하나이다. 이곳을 둘러싼 마을 전체가 '그랑 릴라(Grand Lilas)'의 탄생과 함께 친환경 마을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새로이 지어질 이 건물은 문화와 예술 시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역사 애호가들은 레지스탕스 박물관(musée de la Résistance)의 개관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세워질 그랑 릴라는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농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식물이 가득한 공간은 도심 내 새로운 산소 공급기의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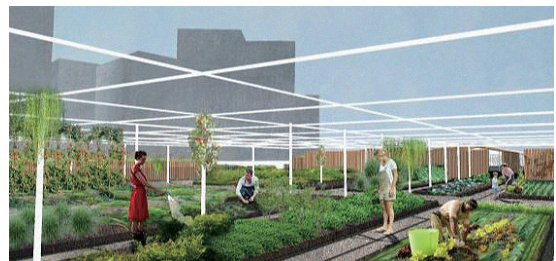


로망빌, 기억의 장소

출처: <http://www.shahinda-lane.com>

파리 북부, 도시 텃밭(Une ferme urbaine au Nord de Paris) - 본드 소사이어티 아소시에 (Bond Society Associées et Cultivate)

샤펠 인터네셔널(Chapelle international)의 1단계 공사가 시작되어 파리의 새로운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2단계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스포츠 센터, 주택, 상업 공간뿐 아니라 건물 옥상에 위치한 7000m²의 도시 텃밭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머슈루프(Mushroof)'로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사라 미카(Sarah Msika)와 시드니 드루르메(Sidney Delourme)가 이끄는 스타트업 '컬티베이트(Cultivate)'가 제안한 농업 혁신 프로젝트이다.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텃밭을 조성하여 수확된 작물이 인근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파리 북부, 도시 텃밭

출처: <https://www.bond-society.com/bond/>

스마트 사업가를 위한 천국(Un havre pour entrepreneurs connectés) - 본드 소사이어티 아키텍츠(Bond Society Associées et Cultivate)

비트리 슈 센(Vitry-sur-Seine)은 파리 남부에 위치한 마을로, 21세기형 생산도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다. 이 프로젝트는 버려진 철도와 산업화 이후 황무지화된 시 재개발사업의 일부이다. 2030년 이곳에서 미래지향적 기업 클러스터 탄생이 예고되었다. ‘갸흐 아르도안(Gare Ardoines)’이라 불릴 이 클러스터는 팡랩 아틀리에와 3.0이벤트를 유치하여 디지털 분야의 신기술을 선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곳의 테라스는 식물로 가득할 것이고, 건물에는 시네틱 기술이 적용되어 움직이는 입면이 구현될 것이다.

소개를 마치며

파리시는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새로움을 찾는 방식은 도시와 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존중한다. 오래된 건물을 단순히 낡고 버려진 건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지켜 내려는 움직임에서 그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다룰 때 단순히 건축가와 도시설계사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도시와 삶을 바라보고 전

문인의 시선을 나누며 그 안에서 새로움을 모색한다.

도시재생과 건물 재활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는 주제이다.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기에 앞서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이어나갈지 먼저 가치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랑파리 프로젝트 사례를 보며 ‘도시의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방만해질 수 있는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는 다름 아닌 역사를 이어나가며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머금은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자 하는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 1 We demain. (2016). Grand Paris : Une forêt de mille arbres pour couvrir le périphérique. https://www.wedemain.fr/Grand-Paris-Une-foret-de-mille-arbres-pour-couvrir-le-peripherique_a1645.html
- 2 Le Parisien. (2012). Paris : Morland, un chantier à 450 M€. <http://www.leparisien.fr/paris-75/paris-morland-un-chantier-a-450-meur-13-02-2019-8011344.php>
- 3 HARDEL LE BIHAN ARCHITECTES. (2017). SPORT ET LOGEMENTS, PARIS. <https://www.hardel-lebihan.com/projets/equipements-sportifs-logements-paris-15>
- 4 Leclercq Associés. (2018). Les Grandes Serres Pantin (93). <http://www.francoisleclercq.fr/fr/projets/les-grandes-serres-de-pantin>
- 5 TVK Agence. (2015). Réinventer Paris – Éole-Évangile. <http://www.tvk.fr/architecture/reinventer-paris-eole-evangile>
- 6 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 (2017). Babcock, La fabrique des Cultures. http://www.perraultarchitecture.com/fr/news/3449-babcock_la_fabrique_des_cultures.html
- 7 Shahinda Lane. (2015). Grands Lilas. http://www.shahinda-lane.com/wp-content/uploads/2017/11/BROCHURE_Grands-Lilas-pour-diffusion-web.pdf
- 8 Explore France. (2018). Dans les coulisses de Mushroof : une ferme urbaine bientôt sur les toits de Paris. <https://www.france.fr/fr/paris/article/dans-les-coulisses-de-mushroof-une-ferme-urbaine-geante-bientot-sur-les>
- 9 NeM Architectes. (2018). IMG P - PÔLE GARE DES ARDOINES. <http://www.nemarchitectes.com/pole-ardoin>
- 10 Grand Paris express. (2017). Notre nouveau Métro. <https://www.societedugrandparis.fr/gpe/carte#lignes>



스마트 사업가를 위한 천국

출처: <http://www.nemarchitectes.com/pole-ardoin>